Saem +

日韓藝術通信實行委員會

한일 예술 통신

충북갤러리
2023.08.23.-09.04

한일 예술 통신

한일예술통신
韓日藝術通信

2022년 한일예술통신 7 – Gift
오하라노 스튜디오 갤러리, 교토, 일본(10.8~10.17)
2021년 한일예술통신 6 - 日常&Gift
숲속 갤러리, 청주, 한국(12.22 ~12.26)
2021년 한일예술통신 5 - 온도(溫度)- Japan side
더터미널교토갤러리,교토,일본(1.12~1.24)
2020년 한일예술통신 5 - 온도(溫度)- Korea side
숲속 갤러리, 청주, 한국(12.8~12.13)
2019년 한일예술통신 4
청주시립미술관 오창전시관, 청주, 한국(9.3.~9.16)
2018년 한일예술통신 3
교토 사가 예술관 & 스페이스 란, 교토,일본(6.16 ~7. 1)
2017년 한일예술통신 2 – 교차점
숲속 갤러리, 청주, 한국(9.12~9.23)
2016년 한일예술통신
교토사가아트스페이스, 교토, 일본 (6.17~ 6.29)

Another
2021년 또 다른 만남 - in Daejeon 모리스 갤러리, 대전, 한국(8.19~8.25)
2018년 세계평화 한일교류전, 갤러리 자인제노, 서울, 한국(12.1~12.10)

韓日藝術通信은 2016년 교토에서의 첫 전시회를 시작으로 한국(청주)과 일본(교토) 양국 지역을 기반으로 서로의 예술 및 인적교류를 위해 시작한 전시회로 국가적 이념과 정치, 사회적 현상 및 문제를 떠나 서로의 지역 예술의 호기심과 지역적 한계를 넘어 폭넓은 활동을 위해 결성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물리적인 단절 시기에도 교류의 본질적인 취지와 의미를 고민하면서 전시회의 지속에 대해 새삼 인식하면서 결국 예술 활동의 가치는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상황에 맞게 양국 지역에서 전시회를 진행해 왔다. 이점은 예술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문제에 대해 서로 깊게 논의하고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고 코로나 시기 세계 국가 간의 고립상황에서는 예술 행위와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이는 전시회 형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였으며 편지라는 매개를 빌어 서로의 예술적 고민과 현재의 예술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전시회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간 서로의 지역 예술에 대한 고민은 유사한 듯 다른 지역의 예술 현상을 전시회의 개념으로 도출하여 세계의 예술 흐름에서 아시아 예술의 의미, 방안 등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예술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한 전시회 등 (온도/溫度) 여러 주제를 통해 서로의 예술을 이해하고 나아가 아시아의 현대 미술의 위치에 대해 고민해왔다. 이렇듯 그간 진행해 오던 한일 양국 지역 예술의 교류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번 전시회 또한 세계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서의 (전쟁, 코로나, 기후변화 등) 예술과 예술가가 어떠한 역할로 존재하는지 또는 수단으로서의 예술의 돌파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전시회가 되었으면 한다.

- Saem

참 여 작 가
ARTISTS

한국 KOREA 韓國

박승순 PARK Seungsoon
이규식 LEE Gyusik
하명복 HA Myungbok
최부윤 CHOI Booyun
윤덕수 YUN Duksu
박진명 PARK Jinmyung
박영학 PARK Younghak
최민건 CHOI Mingun
이고운 LEE Gowoon
박주영 PARK Juyoung
이승미 LEE Sungmi

일본 JAPAN 日本

나가야시키 토모나리 NAKAYASHIKI Tomonari 中屋敷 智生
나라다 코지 NARADA Koji 奈良田晃治
오오마에 하루나 OMAE Haruna 大前春菜
나가시마 사토코 NAGASHIMA Satoko 長島さと子
사메지마 유이 SAMEJIMA Yui 鮫島ゆい
타케오 아야코 TAKEO Ayako武雄 文子
마츠모토 세이지 MATSUMOTO Seiji 松本誠史
미야오카 토시오 MIYAOKA Toshio 宮岡俊夫
가와무라 노리오 KAWAMURA Norio 河村啓生
이노우에 유카리 INOUE Yukari 井上裕加里
배상순 BAE Sangsun 裵相順
토마스 사브 SVAB Tomas シュヴァーブ トム

ParK, seungsoon

박승순

1988년 파리1 팡테옹 소르본 대학교 석사
(Université Paris 1 Panthéon-Sorbonne)
1986년 파리고등국립장식미술학교 서양화과 졸업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arts décoratif Paris)
1984년 프랑스 부르즈(Bourge) 국립미술학교 서양화과 졸업
1978년 추계예술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1986년 한국 그로리치 화랑이후 1991년 파리 카타르(Cath'art)
MAC 2000, 갤러리 인, 영은미술관, 아미 미술관 등 수십여 회 개최.

그룹전
현대화랑, 쉐마미술관, KIAF(갤러리 박영) 등

수상
1985년 프랑스 딸랑스전과 꽁후레이 따스트 뱅 수상.
전) 추계예술대학교 서양화과 겸임교수,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위원
현) 영은미술관 Y.A.M.P. 작가

작품소장
COLAS(프랑스), 영은미술관, 과천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이화여자대학박물관, 주레바논 대사관, 박영장학문화재단, 광주은행 등 다수

‘빛과 침묵’
나의 작업은 우리 삶의 풍경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물리적 공간에 반추된 풍경은 화면 위에서 또 다른 풍경을 이룬다. 여러 색과 형상은 여러 차례 반복하고 추가하는 작업 과정을 통해 축적한 희로애락, 사계절의 오묘한 빛에 따라 새로운 조형적인 공간을 구축한다. 이로써 나타난 또 다른 풍경은 다양한 감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나는 ‘침묵의 장(場)’으로 조형화한 추상 작업을 통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빛의 역할은 화면 안에서 극대화되어 여러 형상을 또렷이 재현한다. 빛에 따라 반사되고, 투영되며, 흡수되는 기운들은 추상적 형상 그리고 심연의 뜻을 지닌 침묵이 된다. 이러한 과정의 작업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주변의 따뜻한 이미지, 아름다움 그리고 삶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빛과 침묵이라는 강한 에너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에너지로 다시 표현하는 행위다.

<침묵의 창(23-7)>, Acrylic on canvas, 116.8×91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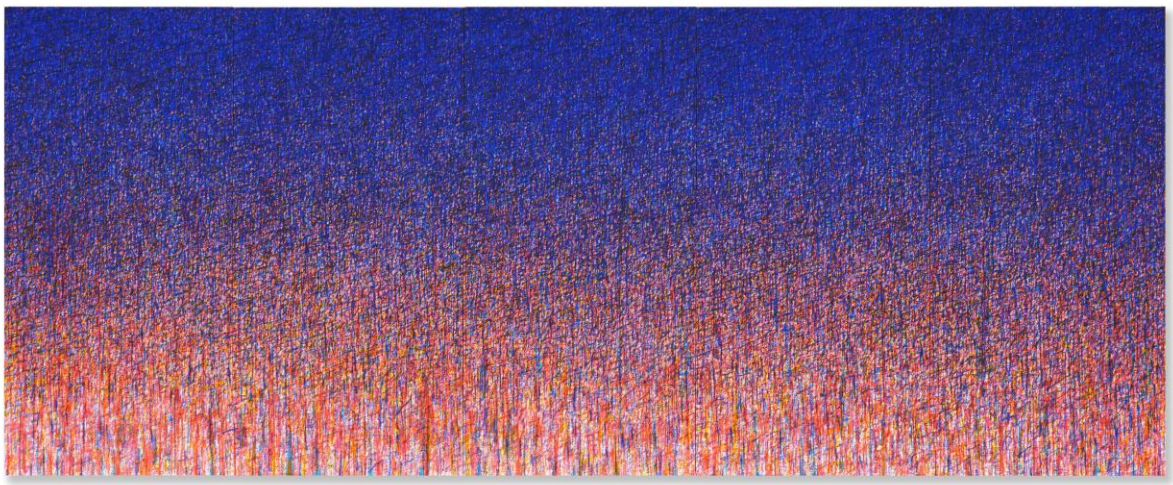
LEE gyusik

이규식

개인전
2019 自 · 自 · 自,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2015 Obsession(집착),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2 When I was a middle school student, 스페이스몸 미술관, 청주

단체전
2023 한일예술통신8, 인사아트센타 충북갤러리, 서울
무심회화전, 청주교육대학미술관, 청주
Oasis, 청주교육대학미술관, 청주
2022 한 · 중 현대미술의 새로운 좌표, 쉐마미술관, 청주
한일예술통신7 –GIFT, Oharano studio gallery, 교토
Play-on / pop-up gallery in 성안길, 청주 외

'잔혹한 예지(豫知)'는 뻔히 알면서도 깨우치지 못하는 무지에 관한 이야기다. 수 없이 반복해서 이름을 쓴다. 갈등과 번민의 원인이 욕망 때문임을 깨닫고 난 뒤 생겨난 습관으로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일 뿐이라는 고백이다. 이름은 간데없고 물성(物性)만 남게 될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글씨를 쓰는 이유는 자유롭고 싶어서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을 인식하고 싶은 주문(呪文)이다.



<李규식-잔혹한 예지>, Acrylic on canvas, 300×120cm, 2023

HA myungb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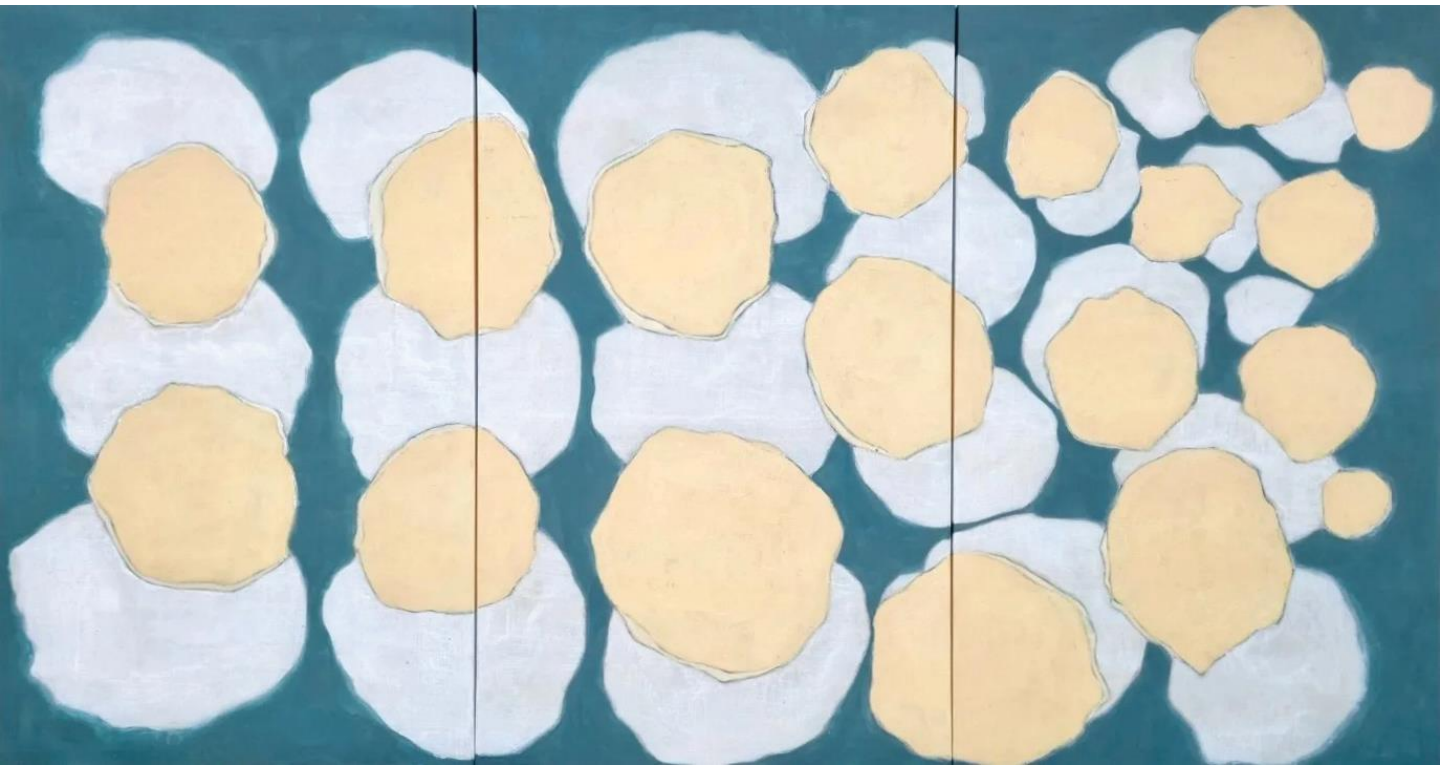
하명복

2003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0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1987 상명여자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1983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개인전 (현재~1995년) 24회
2022 프라미스 갤러리. 서울
2021 공갤러리. 경기
2016 리디아갤러리. 서울
2013 갤러리 다미안. 경기
2012 MUI MUI. 서울
2009 박영덕 갤러리. 서울
영은 미술관, 광주, 경기도
GALERIE AN DER PINAKOTHEK DER MODERNE - BARBARA RUETZ, 독일

단체전 (현재~1986)
2023 아트미션- 지구 뜰 정원사의 은총일기, E-LAND GALLERY. 헤이리
추상미술의 경계 확장 –점.선.면.색, 김홍도 미술관. 경기
2022 한 중 현대미술의 새로운 좌표, 쉐마미술관. 청주
2021 추상미술의 경계 확장, 영은미술관. 경기)
2020 영은미술관 20주년 특별기획전, 영은미술관. 경기 외

“나는 무심히 그러나 신실하게 점을 던진다.”
화면 위에 점을 던진다.
화면은 하늘이 되고 계곡이 되고 초원이 된다.
나는 그곳에 점을 무심히 던져 놓는다
점들은 하늘 위에 구름이, 숲속에 이슬이, 계곡에 공기 방울이, 거름 밭 위에
씨앗이 되어 떨어진다.



<씨뿌리기>, Acrylic on canvas, 240×130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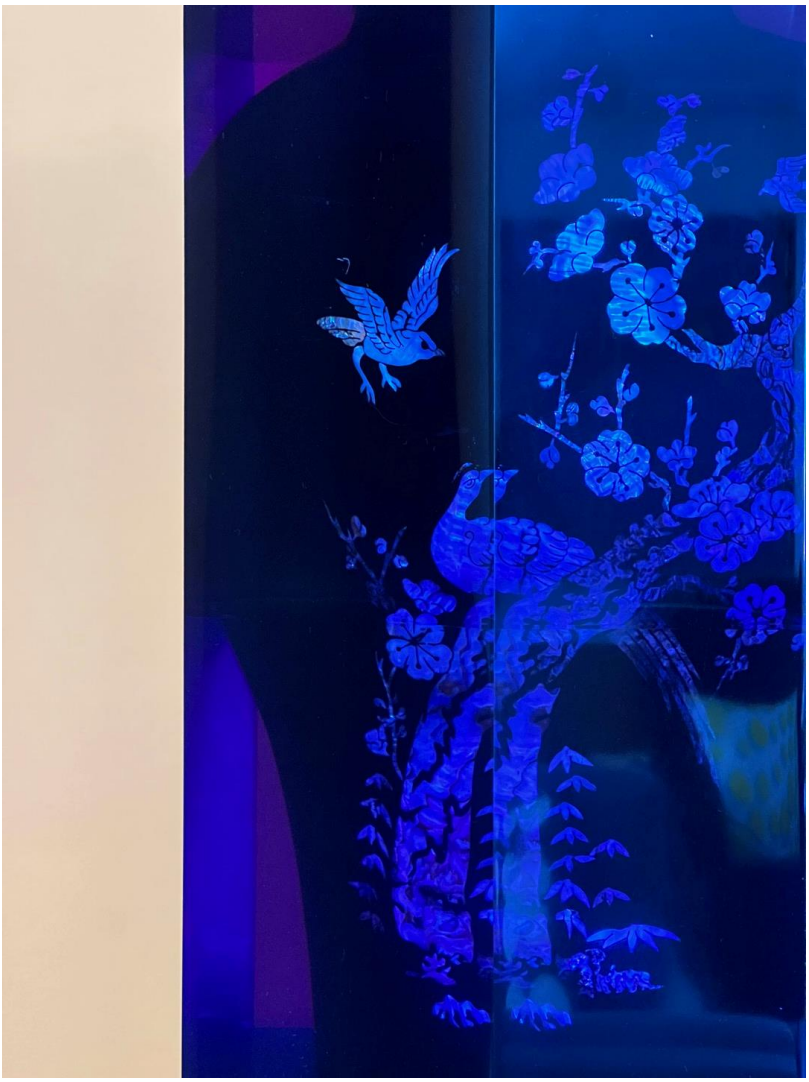
CHOI booyun

최부윤

M.F.A Sculpture, State University of New Yok, New Paltz, U. S. A
Studying Sculpture(Jonathan Shahn), The Art Student League of New York, U .S. A
영남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조소 전공) 졸업

개인전
2014 The Charites, 갤러리 J-One, 대구
2009 “So Hot!"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08 One Between One, 노암갤러리, 서울
2007 AD760310SOC, Dohjidai Gallery, Kyoto, Japan
2005 One Between One, Phoenix Gallery, Chelsea, NY
2004 Installation, Bergen Community College Art Hall, NJ
2003 One Between One, Samuel Dorsky Museum of Art, SUNY, NY

그룹전
2023 “Seven Frontiers” 갤러리 우화루, 의성
한일예술통신7-Gift 충북문화관 숲속 갤러리, 청주
”잃어버린 봄” 포항문화재단, 포항. 외 200여회



<Vase 2023-1>,mixed media on Resin .
25× 25× 45(H), 2023

나의 작업은 미학을 통해 고전과 초현실 사이의 균형에서 변형, 자기 인식, 고정 관념 및 범주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습, 인식과 현실의 차이를 연구합니다. 형상은 내부를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없으며, 억제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입니다. 친밀하고 비현실적인 차원에서 고립된 각 캐릭터의 이야기는 정체성과 존재의 여러 측면에 대한 반영입니다. 예술가로서 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감정과 생각의 다른 방식을 소통하고 자극하는 것입니다.

YUN duksu

윤덕수

2003 독일뮌헨 쿤스트 아카데미 조각전공 (Diplom)
1991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 졸업

개인전 12회
2021 한강문화관, 경기여주
TITF 갤러리, 대구
2020 레미안 갤러리, 서울
2018 인사아트센터, 서울 등

부스전
2022~2019 서울 국제 조각 페스타, 한가람미술관,서울 벡스코,부산

레지던시
2011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5기

봄에 심었던 토마토가 예쁜 꽃을 피워 벌, 나비를 불러 귀여운 열매를 맺었다.
6월을 지나면서 텃밭에는 빨간 토마토들이 주렁주렁 많이도 달렸다.
그 형태들이 제각각 너무 재미나다.
크고 이쁜 놈으로 골라 누군가에게 나눠줘야겠다.

<토마토>, 알루미늄 주물, 우레탄도장,150×120×300cm, 2023

PARK jinmy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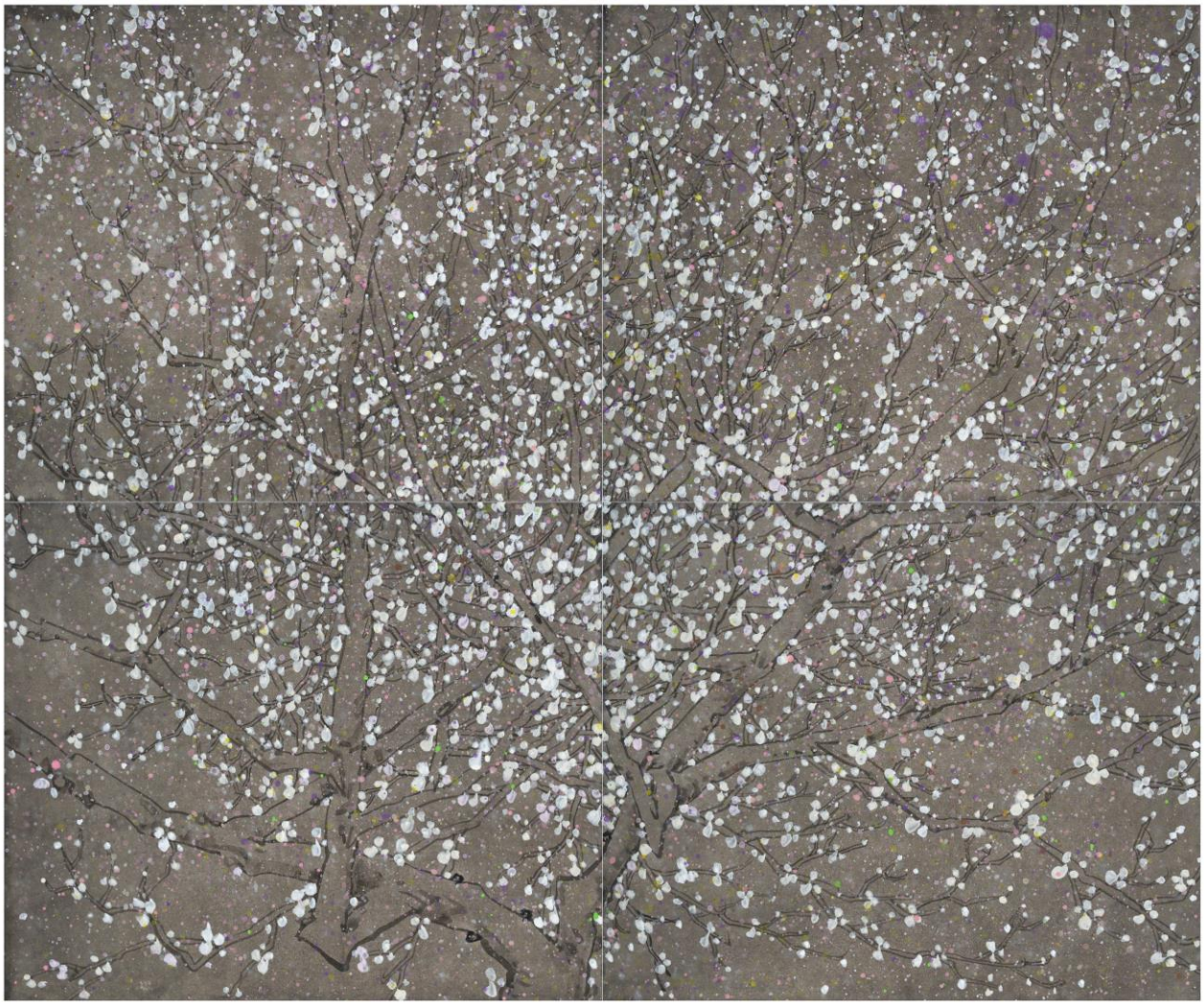
박진명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화학과 졸업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 졸업

개인전 15회
2021 로컬프로젝트 잔상의기록,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2019 숲속 갤러리, 청주
2017 갤러리 자인제노, 서울
2016 갤러리 H, 청주
2011 모리스 갤러리, 대전
2010 GALERIE PICI, 서울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09 GALLERY AKA Speces, 서울, 외

그룹전 150여회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청주시립미술관, 충북대학교 병원,
리솜리조트, 쉐마미술관 등



<그... 봄>, 종이 위 먹, 과슈, 30×36×4pieces, 2023

시간은 지난날을 지나고 지금 현재도 지나가고 있다.
지나간 기억 너머 찰나의 장면 속에 감춰져 있는 이야기들과 그 안에
숨어 있는 순간의 감정이 일렁이고 체감하는 여러 빛깔과 보이지
않는 감각 그리고 그 무언가를 화면에 새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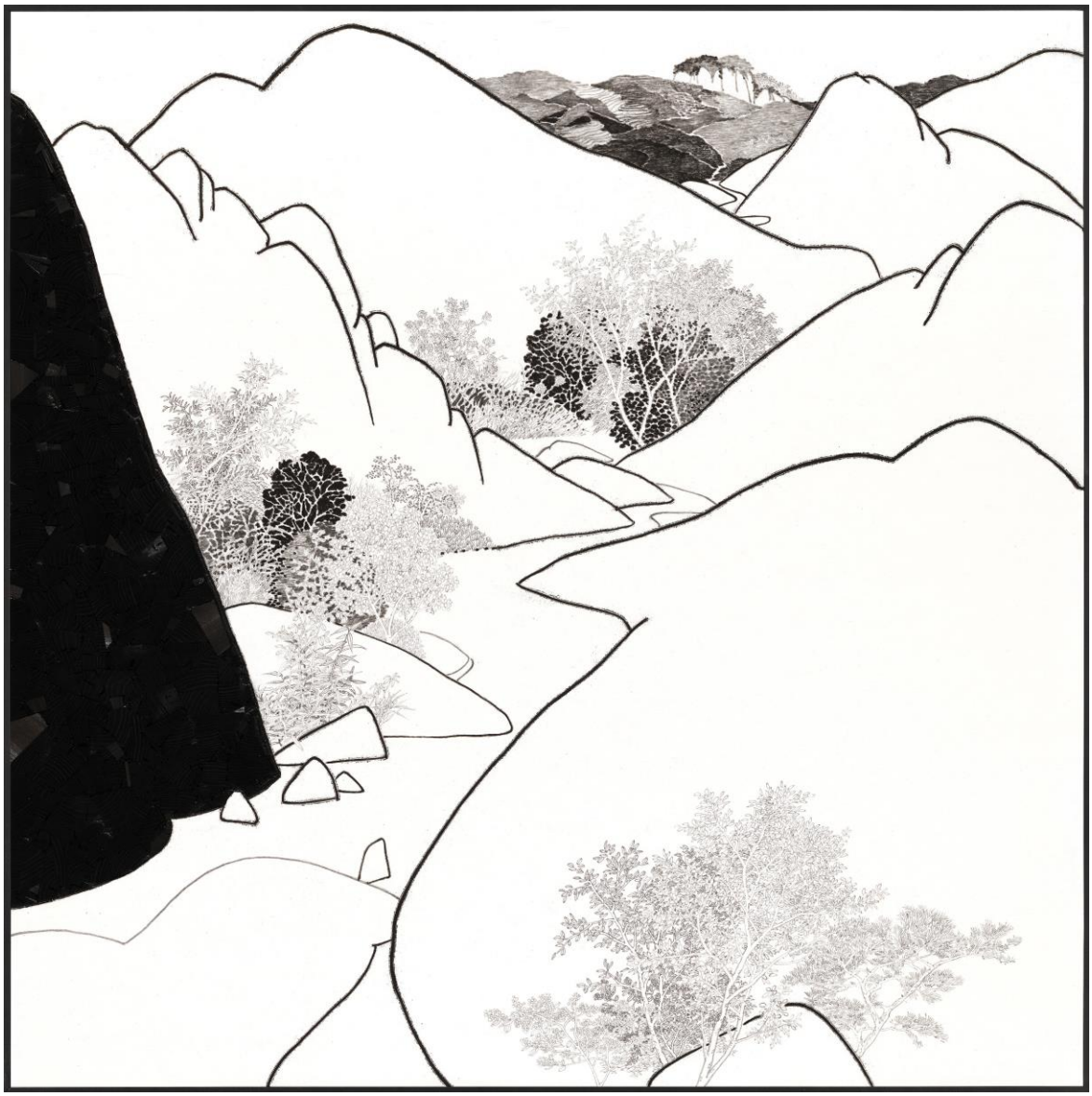
PARK yuounghak

박영학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 졸업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화학과 졸업

개인전 (23회)
2023 갤러리마노, 서울
2022 영은미술관, 경기 광주
2021 수원아트스튜디오 푸른지대창작샘터, 수원
스페이스몸 미술관, 청주
2019 Galleryartpark, 칼스루헤, 독일
2018 갤러리 도스, 서울
박영덕 화랑, 서울 외

단체전
2023 비움과 채움, 메타갤러리라루나, 서울
2022 대구아트페어, 엑스코, 대구
KIAF, 코엑스, 서울
2021 kiaf2021, 코엑스, 서울
또다시 흐르기로 작정하였다, 수원미술전시관, 수원
다시 대화하는 풍토, 쉐마미술관, 청주
땅은 잠든 적 없어, 아트스페이스 광교, 광교
2020 kiaf2020 in Gallery Mano, 갤러리마노, 서울
수원아트스튜디오 인트로전, 푸른지대창작샘터, 수원
박영학,김미경 2인전, 갤러리마노, 서울
2019 Asia Art Connection, 유진갤러리, 서울
동경아트페어, 동경, 일본
칼스루에 아트페어, Internationale Messe, 독일. 외 다수



<단아한 23-16>, 장지위 방해말, 목탄, 숯, 연필, 90×90cm, 2023

-단아한풍경-
나는 오랫동안 산, 나무, 논과 밭, 마을, 바다가 펼쳐진 자연의 풍정을 담아왔다. 모두 자연의 본성에 가까운 것들이다.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는 소재들로 구성된 나의 화폭에서 유독 '보이지 않는' 것은 인간과 구조물이다. 그리고 인간의 손길이 닿은, 이른바 문명적인 것들도 검은 선의 윤곽만을 취하고 있어 그 공허한 존재감만 짐작하게끔 표현하였다. 자연을 바라보는데 있어 자연스럽지 않은 '인위'로부터 '자연'을 지키려는 나의 방식이다. 그 반대로 자연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또한 함축하는 대상은 나무다. 치밀한 정밀묘사로 화면의 공간을 수북하고도 꼼꼼하게 메우며 하얀 바탕과 공허한 존재들을 품어 아우른다.

CHOI mingun

최민건

2004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화학과 졸업
2002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 졸업

개인전
2017 a borderline between, 충북문화관, 청주
a borderline between, 리디아 갤러리, 서울
2016 a borderline between, 현대백화점 충청점 갤러리H, 청주
2013 a borderline between 2013 창작지원전, 롯데갤러리, 대전
외 12회

그룹전
2021 대화하는 풍토 (쉐마미술관, 청주)
평화8+9 (나가사키 브리크홀, 나가사키 일본)
한일예술통신 NO5 온도, 터미널쿄토, 교토
2020 부감적 풍경 -청주 (청주문화관, 청주)
한.중 국제미술교류전- 조우여상처, 쉐마미술관, 청주
서원경 산책 - 청주,전주 현대작가 교류전, 쉐마미술관, 청주
오아시스, 청주교육대학교 미술관, 청주
2019 뉴 실크로드 청주미술의 지층, 오사카 한국문화원, 오사카
춘풍나가사키, 브리크홀갤러리, 나가사키
Nouveau Dialogue, 갤러리 89 , 파리
한일예술통신 – 온도, 청주시립미술관 오창전시관, 청주
아름다운 기술, 충북문화관 숲속 갤러리, 청주
좌고우면, 쉐마미술관, 청주
아트광주2019,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동북아국가유화전, 내몽고미술관, 후어하우터시 외 100여회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청주시립미술관, 쉐마미술관 등

나의 작업은 나자 신에 대한 본질의 의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불 꺼진 창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과 마주친다. 지금 나의 모습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분열하고 공간을 분열한다.
그러한 순간은 하나 하나의 레이어가 되어 겹쳐지며 익숙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된다.
이러한 표면 사이의 경계에서 유희하고 방황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a borderline between>, Acrylic on canvas, 145,5×97cm, 2023

LEE gowoon

이고운

2015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전공 박사
2007 School of Visual Arts, New York, MFA
2005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부 회화·판화전공 석사
2002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회화·판화전공, 미술사학 복수전공 학사

개인전
2023 계절의 몽상, 포배럴카페ART SPACE
2022 정원의 자장가, 쉐마미술관
서걱이며 걷는 밤, 하우스갤러리 2303 이외 총 10회 개인전

그룹전
2023 감각의 카니발, SVA서초갤러리
봄을_타다, 케이움갤러리
내가 오늘 발견한, Space B-Two, 이대서울병원
2022 마음산책, KB 국민은행Gold & Wise PB센터
8th 옆으로 나란히 서다, 갤러리파비욘드
진수열장, 도잉아트 이외 다수 기획전

작품소장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쉐마미술관 등

<Mellow Garden>, Acrylic on canvas, 70×70cm, 2022

낮 동안 분명했던 대상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밤의 정원에는 뜻밖의 상상이 시작되고 고정된 의미 이전의 이야기들이 노래합니다.
실재와 환상이 연결되는 경계를 넘나들며 환상성이 짙어질수록 밤의 정원은 다채로운 색면으로 단순화되고 자연의 재현에 거리를 둔 색채와 형태의 자율성, 추상성이 강조됩니다.
특유의 부드러운 표면 마티에르는 감상자의 거리에 따라 다른 분위기로 전달됩니다.

PARK juyoung

박주영

2022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졸업
2016 충북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졸업

개인전
2020 언덕 위에 구르늘보, 숲속갤러리, 청주

기획·단체전
2023 청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작품전, 청주교육대학교 미술관, 청주
2022 제 40회 토석조각회, 숲속갤러리, 청주
2021 허기, 아트노이드 178, 서울
여기, 우리가 만나는 곳, 스페이스로, 서울
고요한 세상에 흔적을 남길 때, 갤러리 B77, 청주
제 39회 토석조각회, 숲속갤러리, 청주
제 13회 한국 조각가협회 충북지부, 숲속갤러리, 청주
2020 TAKE OUT 2, 갤러리 다온, 서울
제 12회 한국 조각가협회 충북지부, 갤러리 B77, 청주

잠이 들면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기이한 경험을 하곤 한다.
원하는 층으로 가지 않는 엘리베이터, 착지하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 새,
바퀴벌레들로 가득한 침대,,,
드문드문 기억나는 이미지와 이야기를 한 폭에 담고, 꽃잎들로 다시 조각내어 꽃의 형상으로 피워낸다.
나는 꿈속의 컬러와 이야기, 이미지를 담아, 현실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이 기이한 이야기들을 '꿈꾸는 꽃'으로 조형화하여 간직하고자 한다.

<꿈꾸는 꽃-푸른 악몽>, 75×100×130cm, 혼합재료, 2023

LEE sungmi

이승미

개인전
2023 하지,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22 입하, 청주시립미술관 오창관, 청주
2021 아침이 온다, 숲속갤러리,청 주

단체전
2022-2023 우울의 여러 가지 빛깔, 바로크적 드로잉, 무안 오승우 미술관, 무안
2021 또 다른 만남, 모리스 갤러리, 대전
다시 대화하는 풍토, 쉐마 미술관, 청주
2020 부감각 풍경전, 청주 문화관, 청주
안부, 카페광순, 청주
2019 어떤 물음, 청주시립미술관 오창전시관, 청주
2018 Blue Village, 갤러리 아노브, 서울
한일 예술통신 Part 3, Art Space, SAGA, 교토

레지던시
2022-2023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16기, 청주

<도원경>, 장지에 채색, 100×80cm, 2023

여름, 음 한 풀밭을 발로 탁 차면 축축한 풀 사이에서 수많은 풀 벌레들이 초르르륵 달아나고 젖은 나무의 기둥에도 구불구불 식물들이 기어 다닌다. 해는 점점 길어져 일 년 중 가장 길어지고 하지를 정점으로 다시 밤이 길어질 준비를 할 때 부쩍 환희와 우울이 동시에 찾아온다. 내향의 수풀 사이에 숨어들어 밖을 본다. 나는 이 서늘한 그늘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기로 했다. 풀숲 사이에서 바라보면 식물들은 서로 기대고 잡을 것이 없는가 하며 주변을 필사적으로 더듬거리다가 짓밟고 올라서기도 하며 서로 협력하기도 한다, 연결을 늘 갈증 하지만...

NAKAYASHIKI Tomonari

나카야시키 토모나리

2000年　京都精華大学美術学部造形学科洋画分野卒業

개인전
2023・明日ま、た明、日また明日と小きざ、みな足、取りで一、日一、日を歩む
（KOKI ARTS/東京）
2022・マスキング・エフェクト　（EUREKA/福岡）
2018・永遠のパースペクティブ　（KOKI ARTS/東京）
2014・Surge　（KOKI ARTS/東京）

그룹전
2023・あの!しまだそうとご存知!!中屋敷智生と噂の!!!池田慎の復活の京都市美術館
（京都市美術館/京都）
2022・日韓藝術通信7「GIFT」（Oharano Studio Gallery/京都）
KOKI ARTS 10周年記念展　（KOKI ARTS/東京）
歩く-彷徨の記憶をはぐくむ時間-齊藤彩×中屋敷智生2人展
（ギャルリー宮脇/京都）
第48回現代美術-茨木2021展マスキング・スケープ変わり続ける視点の法則
（茨木市立生涯学習センター/大阪）
2021・韓日藝術通信6「GIFT」　（忠北文化館森ギャラリー/清州, 韓国）
萬華鏡kaleidoscope｜藝術家聯展Group Exhibition　（YIRI ARTS/台北, 台湾）
Second Foundation—Gene Pool of Art　（YIRI ARTS/台北, 台湾）
韓日交流展 また別の出会い　（Morris Gallery/大田, 韓国）
再び対話する風土-韓国日本国際交流展　（Schema Art Museum/清州, 韓国）
歩く-感覚と思考の交差点-Artists and Geibun Project 2021
齊藤彩×中屋敷智生2人展　（武蔵野美術大学/東京）
日韓藝術通信5「温度/온도（オンド）-往復書簡」（The Terminal Kyoto/京都）
TOMORROW'S BRIDGE　（Oarbt/イギリス）
2020・韓日藝術通信5「温度/온도（オンド）-往復書簡」
（忠北文化館森ギャラリー/清州, 韓国）
2019・韓日藝術通信4「温度/온도（オンド）-終わらない対流」
（清州市立美術館梧倉ギャラリー/清州, 韓国）
2018・世界平和韓日交流展　（Gallery ZEINXENO/ソウル, 韓国）
あの!しまだそうとご存知!!中屋敷智生と噂の!!!池田慎とまさかの!!!!京谷裕彰が奇跡の黄金比　（Finch Arts/京都）
ASK–7人の作家　（ART OFFICE OZASA/京都）
Identity XIV-curated by Mizuki Endo-水平線効果（nca｜nichido contemporary art/東京）
2017・1. Certains Regards à Paris-ある視点 in Paris-
（兵庫県パリ事務所/パリ, フランス）

<Soles on the Ground, Surface>, 915 x 730 mm, 2023

混迷を極めるこの時代、宗教や戦争、コロナの問題など、世界中に数多ある真実に本当の正解などあるのだろうか。わたしたちが認識している概念やモノの見方、とらえ方は全てフィクションなのかもしれない。そのような構造的真実やフィクションをも清濁併せ呑む絵画の可能性を模索していた折、キャンバスに貼ったマスキングテープを剥がさずに残すという、取るに足らない試みをおこなってみた。テープが貼り残された画面には、物理的なレイヤーと絵具のイリュージョンとが表裏一体となった不確かな世界のほころびが確かに存在していた。

혼미하기 짝이 없는 이 시대, 종교 전쟁 코로나 문제 등 전 세계에 수많은 진실에 진짜 정답이 있을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개념이나 사물을 보는 방법, 파악하는 방법은 모두 픽션일지도 모른다. 그런 구조적 진실이나 허구도 청탁을 아우르는 회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던 차에 캔버스에 붙인 마스킹 테이프를 떼지 않고 남기는 보잘것없는 시도를 해봤다. 테이프가 붙어 남은 화면에는 물리적 레이어와 물감, 일루젼이 표리일체가 된 불확실한 세계의 터진 곳이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

NARADA Koji

나라다 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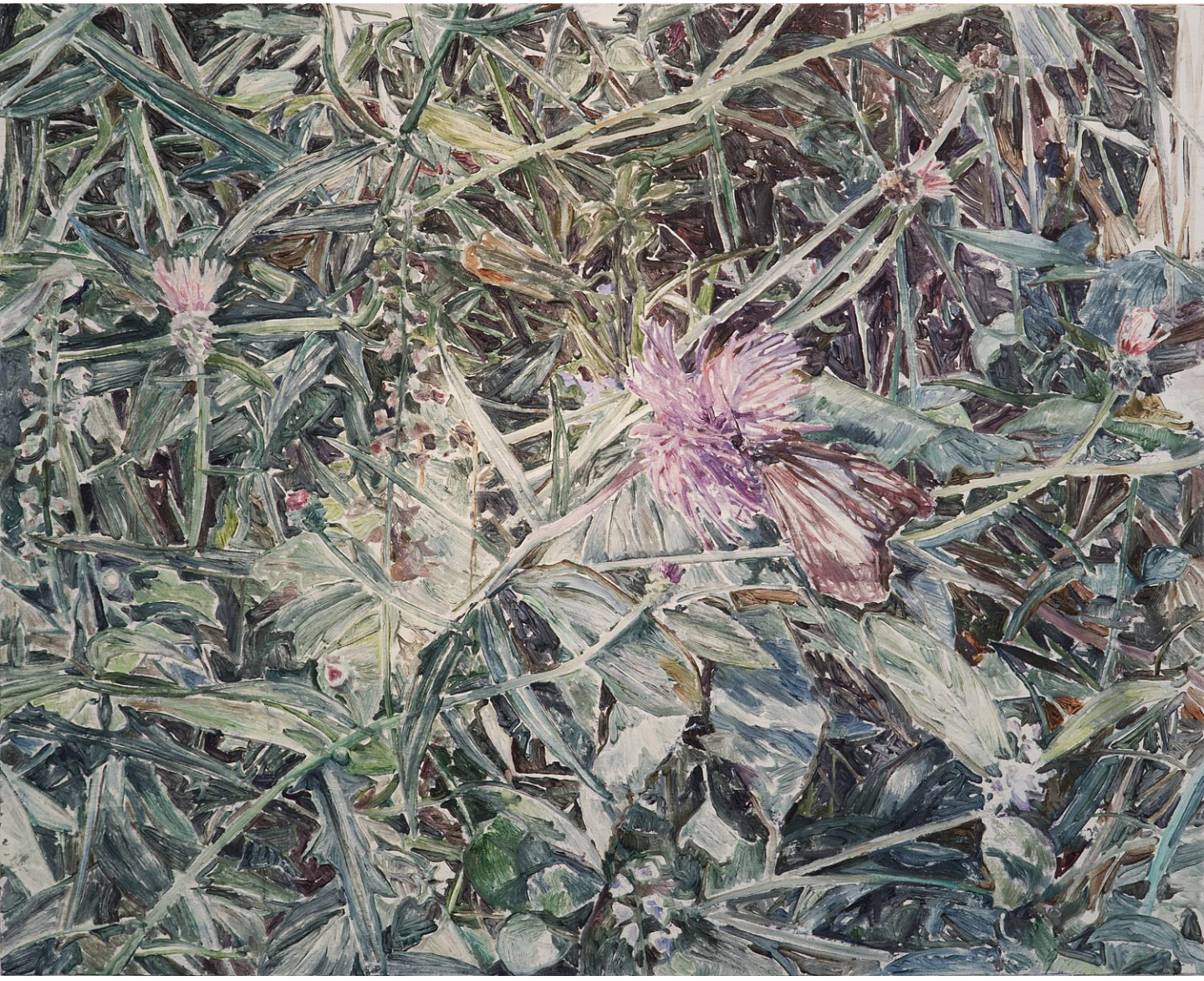
2006大阪芸術大学芸術学部美術学科絵画コース　卒業

개인전
2022年　境界線をまたぐ(2kw Gallery/大津)
2021年　ぬかるみを探る　(GAMOYON Gallery/大阪)
2018年　靄をなぞる　(spectrum gallery/大阪)
2018年　火のかたち　(STREET GALLERY/神戸)
2017年　Trailer　(MU東心斎橋画廊/大阪)
2016年　ショートタイムトリップ　(Galerie Tzigane/大阪)
光を計算式にいれて　(2kw Gallery/大阪)
2015年　うつらうつらと旅をする　(2kw Gallery/大阪)
Foreigners　(KOBE STUDIO Y3/神戸)
2014年　風景の湿度　(2kw Gallery/大阪)

그룹전
2022年　韓日藝術通信7 GIFT　(OHARANO STUDIO GALLERY/京都)
人物と植物 - Plants & People -　(C.A.P.／KOBE STUDIO Y3/神戸)
2021年　移調のみとおし　(Cumonos/大阪)
ROKKO MEETS ART　(六甲スカイヴィラ迎賓館、C.A.P.メンバーとして/神戸)
韓日藝術通信6 GIFT　(忠北文化館森ギャラリー/韓国清州)
韓日交流展 また違う出会い - in Daejeon　(Morris gallery/韓国大田)
第8回清州国際現代美術展 -再び対話する風土-　(シェマ美術館/韓国清州)
Drawing in my room　(GAMOYON Gallery/大阪)
日韓藝術通信5 (JAPAN SIDE)】　(The Terminal KYOTO／京都)
2020年　日韓藝術通信5 (KOREA SIDE)】　(忠北文化館森ギャラリー/韓国清州)
小さい私たち - Who are we?　(＋1art／大阪)
Chemical Reactions 4　(Space 31／神戸)
さんにんアートフェア　(Yuki Tsukiyama Studio/神戸)
韓日芸術通信part4　(清州市立美術館梧倉ギャラリー/韓国清州)
森で会いましょう　(Space 31／神戸)
現象学的スケッチ展　(ギャラリー白／大阪)
現代美術-茨木-2019　(茨木市生涯学習センターきらめき/大阪)
2018年　世界平和-日韓交流展　(Gallery ZEINXENO／韓国ソウル)
ASK-7人の作家　(ART OFFICE OZASA／京都)
風景の澱みから　(2kw gallery／滋賀)

I often paint landscapes that I see while traveling or walking in the mountains and forests. I paint landscapes of places that are a bit removed from my own world, and I feel as if I paint outside of it, or to reflect on the place where I am, I feel as if I paint landscapes that are a little removed from my own world and look back at the place outside of it and where I am.

나는 산과 숲을 여행하거나 걸으면서 보는 풍경을 자주 그립니다. 나의 세계에서 조금 벗어난 곳의 풍경을 그리고, 그 밖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제가 있는 곳을 되돌아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나 자신의 세계에서 조금 벗어난 풍경을 그리고 그 밖의 장소와 내가 있는 곳을 돌아보는 것처럼 느낍니다.



<Thistle Garden>, 803 × 1000 mm, 2022

OMAE Haruna

오오마에 하루나

2017年　京都嵯峨芸術大学大学院芸術研究科芸術専攻造形複合修了
2015年　京都嵯峨芸術大学芸術学部造形学科彫刻専攻卒業

개인전
2021　plumpry（MU東心斎橋画廊/大阪）
2020　full of charm（STREET GALLERY/神戸）

그룹전
2022　gallerism 2022 in 中津（PIAS GALLERY/大阪）
　　日韓藝術通信7 GIFT（OHARANO STUDIO GALLERY/京都）
　　第11回SHOサロン展（京都市美術館別館/京都）
2021　日韓藝術通信6 GIFT（忠北文化館/韓国）
　　第10回SHOサロン展（京都市美術館別館/京都）
　　日韓藝術通信5|温度|은도|往復書簡（The Terminal KYOTO/京都）
2020　韓日藝術通信2020 NO5（忠北文化館/韓国）
2019　現代美術–茨木2019展　(茨木市立生涯学習センター/大阪)
2018　第4回 藝文京展　(京都芸術センターギャラリー北・南/京都)
2017　1floor2017「合目的的不毛論」（神戸アートビレッジセンター/兵庫）

(좌측) <charming pose I>, 800 × 350 × 300 mm, 2022
(우측) <charming pose II>, 850 × 300 × 250 mm, 2022

柔らかい形に惹かれる。ぎゅっと縛るとムニッと溢れる形は、その状況も含めて可愛く面白い。これまで日用品や建材などと組み合わせながら、柔らかい形を制作してきた。ムニッと溢れる形は、組み合わせる素材や縛る・押しつぶすなどの動作から想像した形で、粘土で造形し石膏やFRPで成形している。既製品や木材と組み合わせることでシルエットを強調すると同時に、想像という不確かな形から何か実体を掴む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模索している。

부드러운 모양에 끌립니다. 꽉 묶으면 뭉실뭉실 넘치는 모양은 그 상황을 포함해서 귀엽고 재미있습니다.지금까지 일용품이나 건자재 등과 조합하면서 부드러운 형태를 제작해 왔습니다. 뭉게뭉게 넘치는 형태는 조합하는 소재나 묶기, 짓누르기 등의 동작에서 상상한 형태로 점토로 조형하여 석고나 FRP로 성형하였습니다. 기성품이나 목재와 조합함으로써 실루엣을 강조하는 동시에 상상이라는 불확실한 형태에서 뭔가 실체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모색하고 있습니다.

NAGASHIMA Satoko

나가시마 사토코

東京藝術大学大学院美術研究科修士課程

개인전

2008 Painted」展、Art Complex Center of Tokyo、東京
2009 Painted2」展、Art Complex Center of Tokyo、東京
2010 color names」展、ギャルリー志門、東京
2012 アイデンティファイ、アイデンティティーズ-with wordgraphy-」展、
京都精華大学ギャラリーフロール、京都
2014「Satoko NAGASHIMA」展、ISIS Arts, ニューカッスル・アポン・タイン、
英国

그룹전

2003・2008年「群馬青年ビエンナーレ」群馬県立近代美術館、群馬
2006・2007年「現代美術インディペンデントCASO2006」海岸通りギャラ
リーCASO、大阪
2007・2009・2010年「京展」京都市美術館、京都
2010年「GOLDEN Competetion 2010」O美術館、東京
2012年「Domestic and Abroad-国境を超えて見えるもの-」
京都精華大学ギャラリーフロール、京都
2015年 第1回世界青年ビエンナーレ2014」大邱文化芸術会館、蔚山文化藝術
会館、韓国
2019年 美術教育の森―美術教育研究室の作家たち―」東京藝術大学大学美術
館、東京
2019年 韓日芸術通信2019―温度온도 終わらない対流―」清州市立美術館梧倉
展示館、韓国
2021年 第8回清州国際現代美術展　再び対話する風土」シェマ美術館、韓国
2022年 Articulation―区切りと生成―」小山市立車屋美術館、栃木

「Word-Graphy」と呼ぶこの一連の作品群は2008年から開始し、さまざまな色や色調に名前をつける日本の文化と、日本語の豊富な語彙のおかげで、年月を経ながら展開されてきました。日本の伝統的な色の名前は、色の染料や顔料などの染織の美術史を物語っているだけではありません。色の名前それ自体が、社会、文化、芸術とどのように結びついてきたかという独自の歴史があります。私にとって、色の名前は人間社会における民俗工芸の知識も教えてくれる非常に意味のあるものです。
色の和名は、それぞれの色の誕生や色の使用法にも深く根ざしており、「芸術」の本質の重要な一部であると捉えられます。

「Word-Graphy」라고 부르는 이 일련의 작품군은 2008년부터 개시해, 다양한 색이나 색조에 이름을 붙이는 일본의 문화와 일본어의 풍부한 어휘 덕분에 세월이 흐르면서 전개되어 왔습니다.일본의 전통적인 색 이름은 색 염료나 안료 등 염직 미술사를 말해주고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색깔의 이름 자체가 사회, 문화, 예술과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지에 대한 독자적인 역사가 있습니다.저에게 색깔 이름은 인간 사회의 민속 공예 지식도 가르쳐 주는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색의 화명은 각각의 색 탄생이나 색 사용법에도 깊이 뿌리를 두고 있어, 「예술」 본질의중요한 일부라고 파악됩니다.

<Japanese Traditional Color Names of a Rock Garden>, Computer Graphics, 300 × 420 mm, 2022

SAMEJIMA Yui

사메지마 유이

2010京都精華大学芸術学部版画専攻 卒業

개인전
2023 The Beats of Ghosts, NADiff A/P/A/R/T（東京）
2021 もつれるルーパ tangled rūpa, GALLERY VALEUR（愛知）
2020 境界のミチカケ,2kw gallery（滋賀）
2018 √ root, 2kw gallery（滋賀）
2017 鮫島 ゆい展 punctuation」VOU（京都）
2016 Konohana's Eye #11鮫島 ゆい展 5時の点は白と黒
the three konohana（大阪）
2014 Konohana's Eye #3鮫島 ゆい展 中空の雲をつかむように
the three konohana（大阪）
2013 TWS-Emerging 2013/pipedream,トーキョーワンダーサイト本郷（東京）

그룹전
2023「ACT (Artists Contemporary TOKAS) Vol. 5「引き寄せられた気配」」トーキョーアーツアンドスペース本郷（東京）
2022「The Layer, the layer」The Third Gallery Aya（大阪）
「JAPAN / KOREA ART Communications 日韓藝術通信 7 Gift」OHARANO STUDIO GALLERY（京都）
「ヨに接続するための方法論」TENSHADAI（京都）
「ブルーピリオド展 / BLUE ART COLLABORATION」寺田倉庫（東京）
2021「UMEKOUJI MEETINGS Vol.00」河岸ホテル（京都）
「CAPTURE」RIKKA gallery 麻布台（東京）
「MITSUKOSHI Art Weeks」日本橋三越本店（東京）
「鮫島ゆい 天牛美矢子　ABRACADABRA」2kw gallery（滋賀）
「第8回清州国際美術展　再び対話する風土 - 日本韓国国際交流展」シェマ美術館（韓国 清州）
「エマージング・アーティスト展」銀座 蔦屋書店 GINZA ATRIUM（東京）
「JAPAN KOREA Art Communications 日韓藝術通信5/温度온도（オンド）往復書簡」The Terminal Kyoto（京都）
2020「PERSPECTIVE SPIRAL」成安造形大学【キャンパスが美術館】ギャラリーアートサイト（滋賀）
2019「韓日藝術通信2019 温度 / 온도」清州市立美術館別館ギャラリー（韓国 清州）
2018「日韓藝術通信part3」嵯峨美術大学（京都）
「SAEM どんな問い?」清州市立美術館別館ギャラリー（韓国 清州）
2017「韓日藝術通信part2 Cross point」忠北文化館森ギャラリー（韓国 清州）

<yobitsugi (festival music)>, 1250 × 1700 mm, 2022

主に絵画表現を中心とした美術作品の制作、発表を行う。古来より人びとのなかに無意識のうちに根付いている、「目にみえないもの」を信じ、五感で感じ取ろうとする精神性に関心を持ったことから、その存在や信仰とは何かを問うようになる。現在は、時間・存在の概念において異なる事物の断片を組み合わせるように描く手法を用いて、「みえるもの」と「みえないもの」をつなぎ、あるいは両者の境界を示すことを試みている。

주로 회화 표현을 중심으로 한 미술 작품의 제작, 발표하고 있다. 예로부터 사람들 속에 무의식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오감으로 느끼려는 정신성에 관심이 있고 그 존재나 신앙이 무엇인가를 묻게 된다. 현재는 시간·존재의 개념에 있어 다른 사물의 단편을 조합하도록 그리는 수법을 이용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하거나, 혹은 양자의 경계를 나타내도록 시도하고 있다.

TAKEO Ayako

타케오 아야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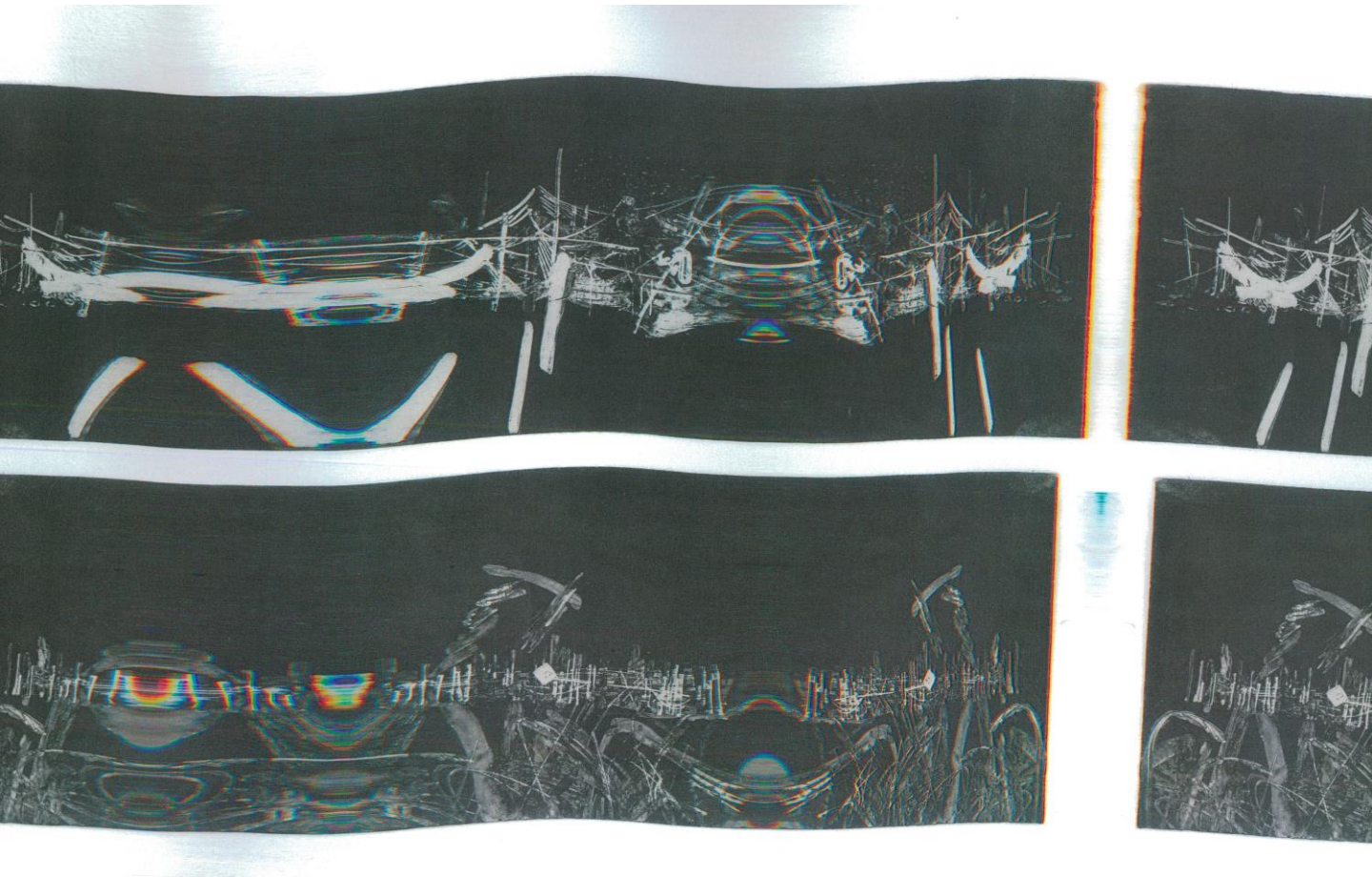
2019年 3月 京都市立芸術大学 美術研究科 修了

개인전
- flow view　2021.7/2-7/19 GAMOYON Gallery/大阪
- Decalcomania of vison　2022.5/24-5/29　ギャラリー恵風/京都
- Relic　2022.9/23-10/3 GAMOYON Gallery/大阪

그룹전
- 第43回全国大学版画展　2018.12/1-12/16　町田市国際版画美術館/東京
- てんかいするメソッド　2022.9/2-9/24　成安造形大学
- 漁師と芸術家〜琵琶湖を問う、琵琶湖を読む〜　2022.11/2-11/15　和邇図書館/滋賀
- 第41回明日をひらく絵画展上野の森美術館大賞展　2023.4/29-5/10　上野の森美術館/東京

コピー機が原稿を照明ランプで照らし感光体に映し出すとき、原稿を動かすと感光体には図像が伸びたり反転したり、モノクロの原稿が色鮮やかに転写され印刷される。この現象を利用し、印刷されたものを下絵とし銅版画の制作を行い、銅版画とコピー機２つの印刷技術を融合させた表現を模索している。

복사기가 원고를 조명 램프로 비춰 감광체에 비출 때, 원고를 움직이면 감광체에는 도상이 늘어나거나 반전되거나 흑백 원고가 색이 선명하게 전사되어 인쇄된다. 이 현상을 이용하여 인쇄된 것을 밑그림으로 하여 동판화를 제작하고 동판화와 복사기 두 가지 인쇄기술을 융합한 표현을 모색하고 있다.



<copydrawing>, 297×420 mm, 2023

MATSUMOTO Seiji

마츠모토 세이지

2010　京都市立芸術大学美術学部美術科彫刻専攻　卒業
2012　京都市立芸術大学大学院美術研究科修士課程彫刻　修了

개인전
2016　まだそこにいたのか(GALLERY wks./大阪)
2019　CARVING大地（STREET GALLERY/兵庫）
2021　地中宇宙塊（GAMOYON Gallery/大阪)
　　新塊陸（Alt Space POST/京都)

그룹전
2018　「第4回藝文京展」(京都芸術センター/京都)
　　「現代美術-茨木2018展 特集作家」(茨木市立生涯学習センターきらめき/大阪)
2019　「森で会いましょう」(Space31/兵庫)
2022　「日韓藝術通信７GIFT」(Oharano Studio Gallery/京都)
2023　「TRAD「アートと泊まるプロジェクト」(宝塚市・ホテル若水/兵庫)

I dream a lot.
Talk to people you've never met and feel nostalgic in places you've never been.
I feel that in my dreams, I reconstruct in my brain the fragments of the scenes I saw and the emotions I felt in reality, and visualize the essential parts of me.
By manifesting the dream world in the real world, my dream will remain in someone's memory, and if I see that dream, a mysterious phenomenon called a chain of dreams will occur.

저는 꿈을 많이 꿔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서 향수를 느껴보세요.
저는 꿈속에서 제가 본 장면의 파편들과 현실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뇌 속에 재구성하고, 제 본질적인 부분들을 시각화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꿈의 세계를 현실 세계에 나타냄으로써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나의 꿈이 남을 것이고, 그 꿈을 보게 되면 꿈의 연쇄라는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Dream life with GREATDANE>, 250 × 300 × 350 mm,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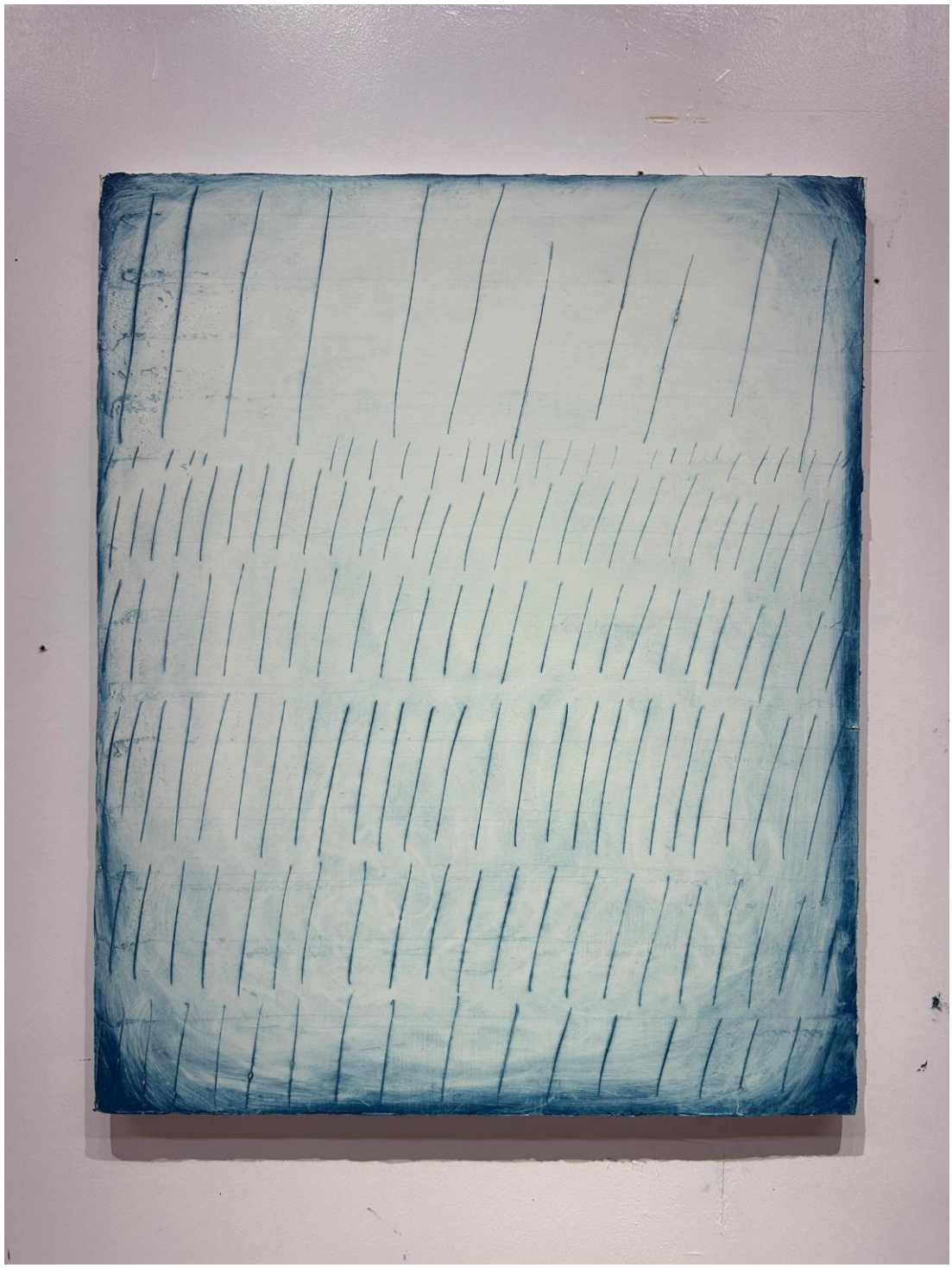
MIYAOKA Toshio

미야오카 토시오

2006年　多摩美術大学絵画科油画専攻卒業
2008年　多摩美術大学美術研究科絵画専攻修了

개인전
2007年　どこかとはどこか　西瓜糖（東京）
2014年　誰も知らない場所　ベイスギャラリー（東京)
2016年　名前を奪われた風景　KUNST ARZT （京都)
2018年　何処か　私に　似ている　KUNST ARZT （京都）
2020年　漂流する絵画　GAMOYON　Gallery　（大阪）
　　漂流する絵画　YUKI-SIS　（東京）
2021年　月光-風景　　DOOR gallery （松江)
　　記憶の痕跡　　日本橋三越本店美術サロン　（東京）
　　天皇-精神の焼跡-KUNST ARZT (京都)
2022年　月光-風景 II　DOOR gallery (松江)

단체전
2007年　トーキョーワンダーウォール公募２００７入選作品展　東京都現代美術館（東京）
2013年　京芸Transmit Program KYOTO STUDIO展　京都芸大ギャラリー@KCUA (京都)
2016年　第2回「藝文京展2016」入選作品展　京都芸術センター（京都）
　　日韓藝術通信　京都嵯峨芸術大学付属ギャラリー　（京都）
2017年　FACE展2017損保ジャパン日本興亜美術賞展　損保ジャパン日本興亜美術館（東京）
　　韓日藝術通信　Part2　忠清文化芸術会館　（清州、韓国）
2018年　風景の澱みから　井上光太郎・奈良田晃冶・宮岡俊夫展　2kwギャラリー（大津）
　　日韓藝術通信　Part3
　　京都嵯峨芸術大学付属ギャラリーSAGA,アートスペース嵐（京都）
　　ASK-7人の作家　ART OFFICE OZASA（京都）
2019年　STILL LIFE 静物展　YUKI-SIS　（東京）
　　韓日藝術通信2019「温度/終わらない対流」
　　清州市立美術館別館ギャラリー（清州、韓国）
2020年　韓日藝術通信５「温度～往復書簡～」　忠北文化館森ギャラリー　（清州、韓国）
2021年　Drawing in my room　GAMOYON gallery （大阪）
　　日韓藝術通信５「温度～往復書簡～」　The　Terminal　Kyoto　（京都）
2022年　YUKI-SIS１０周年記念展　　YUKI-SIS　（東京）
　　日韓藝術通信７～Gift~　OHARANO　STUDIO　GALLERY　（京都）
2023年　岩佐昌昭宮岡俊夫2人展「陰影の愉しみ」　一畑百貨店5階美術サロン（松江）



<月光- 風景>, oil on canvas, 606 × 455 mm, 2023

僕の“月光-
風景”というタイトルの絵画は油彩画の形式を取りながらも、東洋の水墨山水の歴史に連なる絵画を指向したものです。

저의 "달빛-풍경"이라는 제목의 그림은 유채화 형식을 취하면서도 동양 수묵산수 역사와 관련된 회화를 지향한 것입니다.

KAWAMURA Norio

가와무라 노리오

2012年 京都市立芸術大学大学院美術研究科彫刻専攻を修了
2010年 大阪芸術大学 芸術学部 芸術計画学科を卒業

개인전
2022 彫刻と、生け花と、鈴蘭台のこと / うわの空美術館 / 神戸
2021 「一日一華」中間報告 / KOBE STUDIO Y3 / 神戸
2020 –灼景 – Burned Scape / KOBE STUDIO Y3 / 神戸
2016 異界、あるいは彼岸と此岸 / Linlow THE ART / 大阪
2014 Butterfly room / galerie16 / 京都
2012 Sliding (in) black / Frantic gallery / 東京

그룹전
2023 グループショウ「30-40」/ KOBE STUDIO Y3 （神戸市）
STUDIO ARTIST EXHIBITION 2021-2022 / KOBE STUDIO Y3（神戸市）
2022 臨景2022秋 / オリーブドーム広場、石の館（香川県小豆島町）
Assembly / JSR-ジョブ・スペース・ラボ-（神戸市）
日韓藝術通信 7 -GIFT- / OHARANO STUDIO GALLERY（京都市）
UPCYCLE ART Exhibition / AREA INN FUSHIMICHO（広島県福山市）
STUDIO ARTIST EXHIBITION 2021-2022 / KOBE STUDIO Y3（神戸市）

I am engaged in a variety of activities, including the creation of sculptures and Japanese flower arrangement “Ikebana”, based on the themes of "life and death" and "how to live/how to die" in the modern age. With Covid-19 as a backdrop, I started an activity called "Ichinichi Ikka" on SNS, in which I do Ikebana on a daily basis and introduce the plants I used. For this work, "Ichinichi Ikka JP/KR," I selected plants that I used in that activity, which are connected to Japan and Korea, printed them, and framed them.

저는 현대의 '삶과 죽음', '사는 법/죽는 법'을 주제로 한 조형물 제작, 일본 꽃꽂이 '이케바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배경으로 SNS에서 '이치니치이카'라는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활동에서 사용한 식물을 매일 이케바나를 하고 소개하는 '이치니치이카 JP/KR'을 위해 일본과 한국으로 연결된 식물을 선별해 인쇄해 액자에 넣었습니다.

<"One day, One flower“>, Variable size, 2020-

INOUE Yukari

이노우에 유카리

2014年　成安造形大学芸術学部芸術学科美術領域現代アートコース卒業
2012年　倉敷市立短期大学服飾美術学科卒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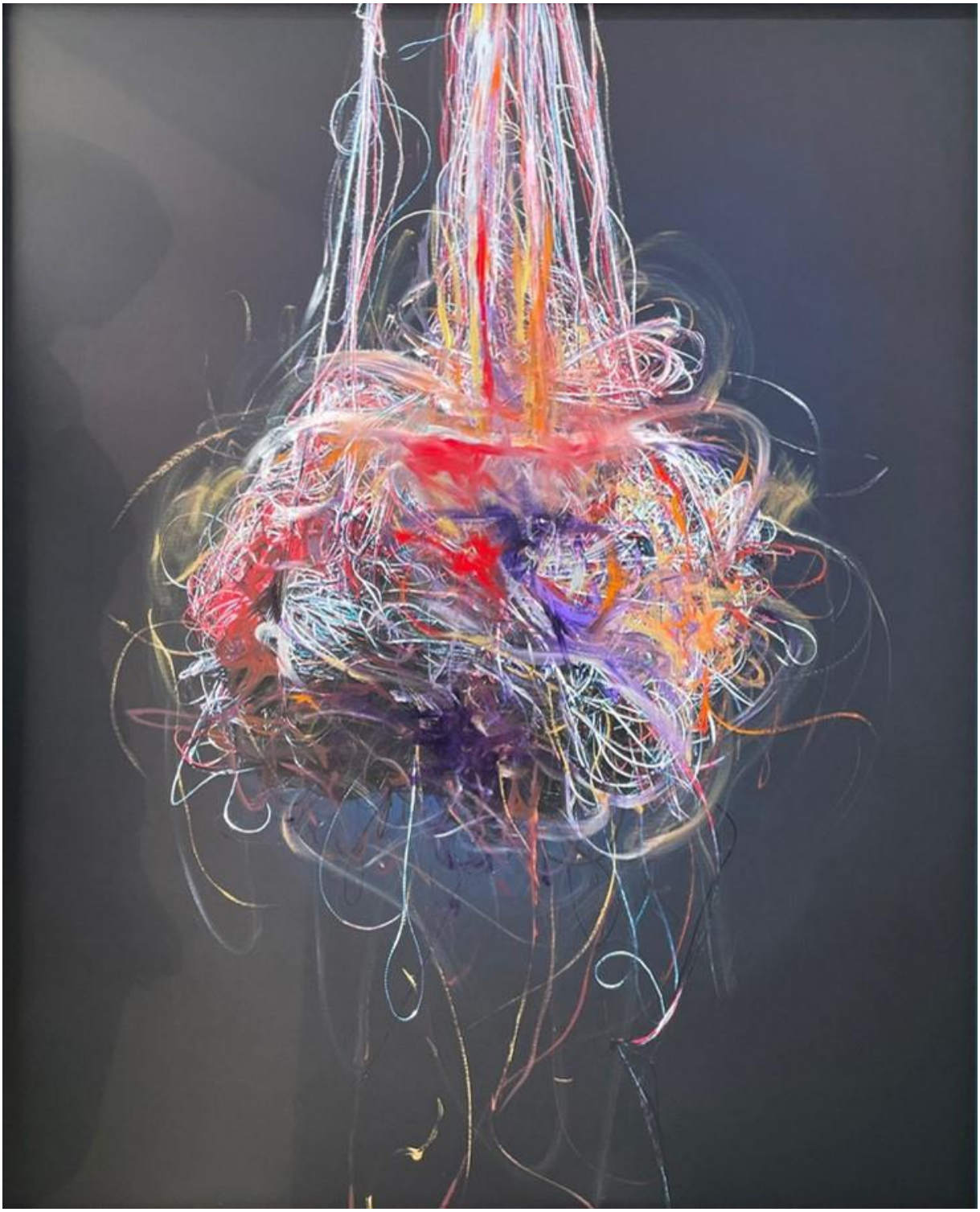
개인전
2022　Women atone for their sins with death (Kunst ARZT/京都)
2019　線が引かれたあと　(Kunst ARZT/京都)
2017　堆積する空気（Gallery PARC/京都）
2015　井上裕加里　展　(CAS/大阪)
　　confidential information　(Kunst ARZT/京都)
2013　It's a small world　(Kunst ARZT/京都)

그룹전
2022年 第1回 MIMOCA EYE / ミモカアイ（丸亀市猪熊弦一郎現代美術館/香川）
2021年 日韓藝術通信５　温度/온도(オンド) ー往復書簡ー
　　(The Terminal Kyoto/京都)
　　Soft Territory かかわりのあわい(滋賀県立美術館/滋賀)
2020年 Kyoto Art for Tomorrow
　　2020ー京都府新鋭選抜展ー（京都文化博物館/京都）
2019年 Parallax Trading (das weisse haus / Vienna, Austria)
　　Kyoto Art for Tomorrow
　　2019ー京都府新鋭選抜展ー（京都文化博物館/京都）
2018年 日韓交流展「韓日藝術通信part 3」(ART SPACE SAGA/京都)
2017年 日韓交流展「韓日藝術通信part 2」　(チョンジュ森中GALLERY/韓国
　　チョンジュ市)
　　京都府アーティスト・イン・レジデンス事業「京都：Re-Search」
　　大京都in舞鶴　(聚幸菴/京都)
2016年 日韓交流展「韓日藝術通信」　(ART SPACE SAGA/京都)
2014年 日韓交流展CARRY MORE　(韓国電力アートセンターギャラリー/韓国ソウル)

<Grouping - Japan, Korea>, - "video 15,'00", 2021

BAE Sangsun

배상순



<The Chandelier>, Acrylic & Archival Pigment Print on canvas,
1300 x 1600 mm, 2023

SVAB Tomas

토마스 사브

2005年エミリー・カー芸術デザイン大学写真専攻卒業

개인전
2022 Record of the Day, +1 art |大阪
2017 Kinetic Portrait, 神戸ストリートギャラリー
2017 Worldlines for an Old Capital, アートスペース虹 (Part of KG+) | 京都
2015 Decoupled Horizons, art space ARE at kumagusuku (Part of KG+)|京都
2014 Melody for Disorder, 神戸ストリートギャラリー
2013 Alongside Beauty and Melody: Degrees of Disorder, アートスペース虹
2010 メタモルフォーゼ, アートスペース虹
2010 META KIT, ラ・ムッジーナ |東京
2009 The Metamorphosis of Spaces: Takashima City, Part III,
サンブリッジホテル|滋賀
2008 The Metamorphosis of Spaces: Takashima City, Gallery Kai |大阪

그룹전
2023 室礼 - Offerings- IX, THE TERMINAL KYOTO (Part of KG+) | 京都
2022 オノマトペ, +1 art
Art Collaboration Kyoto, 国立京都国際会館
京都芸術祭・美術部門, 京都市美術館別館
室礼 - Offerings- VIII, THE TERMINAL KYOTO (Part of KG+)
国際文化交流展, 京都市国際交流会館・倉敷市立美術館| 岡山
2021 10年後 - Ten years after -, +1 art
観自庵・国際アート展, 観自庵・匠の美術館 |福井
京都芸術祭・美術部門, 京都市美術館別館
室礼 - Offerings- VII, THE TERMINAL KYOTO (Part of KG+)
韓日交流展　また別の出会い in Daejeon, 韓国
日韓藝術通信 Vol 5, THE TERMINAL KYOTO
2020 室礼 - Offerings- VI, THE TERMINAL KYOTO (Part of KG+)
韓日藝術通信 Vol 5, Cheongju-si, Korea
京縁, THE TERMINAL KYOTO
2019 韓日藝術通信 Vol 4, Cheongju-si Museum, Korea
京都国際文化交流展, 京都市国際交流会館・ギャラリー桜谷町
2018 ASK_7人の作家展, Art Office Ozasa gallery |京都
2015 國府理とその仲間たち, アートコートギャラリー |大阪
2014 京都府美術工芸新鋭展 2014　京都文化博物館

<Pulse Cast in a Thin Line II>, 3860 x 700 mm, 2023

한일의 미술교류의 힘, 한일예술통신을 말한다

김종근 (한국미협 평론분과 위원장)

전 세계에는 아주 가깝고도 먼 나라들이 있다. 중국과 일본이 그렇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인도와 파키스탄,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바로 한국과 일본이 그러하다.
불가분의 역사적 관계 때문에 우리는 늘 서로를 향해 비난의 눈길로 수십 년을 불편한 상태로 살아왔다. 그러나 함께 살아야 할 세계는 언제나 그런 관계로 우리의 미래를 맡겨 둘 수는 없다.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살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교류를 시작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은 진정한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면서 공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분야의 교류를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한일 예술통신은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이 미술 교류를 통해서 엮어져 온 중요한 문화 행사이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열리지만, 앞으로는 한국과 일본에 전역에서도 개최되어 한일 미술 교류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가능성과 희망은 양국의 훌륭하고 좋은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한, 일예술통신은 2016년 교토에서의 첫 전시회를 시작으로 한국(청주)과 일본(교토) 양국 지역을 기반으로 서로의 예술 및 인적교류를 위해 시작한 전시회로 국가적 이념과 정치, 사회적 현상 및 문제를 떠나 서로의 지역 예술의 호기심과 지역적 한계를 넘어 폭넓은 활동을 위해 결성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물리적인 단절 시기에도 교류의 본질적인 취지와 의미를 고민하면서 결국 예술 활동의 가치는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상황에 맞게 양국에서 전시회를 진행해 왔다.
이제 한일 예술통신은 아시아의 현대 미술의 위치와 한일예술의 교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전개되는 귀중한 첫걸음을 출발했다.
그러면 한일 양국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자.

먼저 가와무라 노리오는 현대에 있어서 '삶과 죽음', '사는 법/죽는 법'을 주제로 한 깊이 있는 조형물을 보여주고 있다.
마츠모토 세이지는 꿈의 세계를 현실 세계에 보여줌으로 꿈의 연쇄라는 신비로운 현상을 탁월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미야오카 토시오는 "달빛-풍경"이라는 제목으로 동양 수묵산수 역사와 관련된 깊은 회화의 세계를 드러낸다. 나가시마 사토코도 색깔 이름으로 인간 사회의 민속 공예 등과 색 탄생이나 색 사용법에 특별하게 주목을 하고 있다.
나카야시키 토모나리는 혼미하기 짝이 없는 이 시대에 물리적 레이어와 물감, 일루젼이 표리일체가 된 불확실한 세계의 존재를 유감없이 표현한다.
나라다 코지는 자신의 세계에서 조금 벗어난 풍경을 그리고 그 밖의 장소와 내가 있는 곳을 돌아보는 영역을 독창적으로 표출한다.
오오마에 하루나는 부드러운 모양으로 실루엣을 강조하는 동시에 상상이라는 불확실한 형태에서 뭔가 실체를 포착하는 감성을 표현하고 있다.
사메지마 유이주 「보이는것」과 「보이지않는 것」을 연결하거나, 혹은 양자의 경계를 가시화
하는 특징을 잘 보여준다.
타케오 아야코는 원고를 조명 램프로 비춰 감광체에 비출 때, 원고를 움직이면 감광체에는 도상이 늘어나는 동판화와 복사기술을 리얼리티 있게 시각화하고 있다.
이노우에 유카리의 영상은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을 배제해가는 프로세스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와 '우리 이외'의 현대사회 속에 현상을 리얼하게 드러낸다.
토마스 사브의 과거와 미래 사이를 넘나드는 선과 리듬은 시공간을 통하여 이루어진 스냅샷은 인상적이다. 우리들의 심장과 맥박 그리고 영혼을 울리는 이유이다.

박승순은 '빛과 침묵이란 우리 삶의 풍경을 서정적으로 표현하여 삶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빛과 침묵이라는 강한 에너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에너지로
다시 표현하는 예술성을 보여준다.
이규식은 뻔히 알면서도 깨우치지 못하는 무지에 관한 이야기로 자신을
인식하고 싶은 주문(呪文)을 이상적으로 나타낸다.
하명복은 "나는 무심히 그러나 신실하게 점을 던진다." 마음으로 화면 위에
점을 던지는 동양적이고 철학적인 자세의 작품을 담아내고 있다.
최부윤은 고전과 초현실 사이의 균형에서 변형, 자기 인식, 인식과 현실의
차이를 현실감 있게 탐색, 추구한다.
윤덕수는 토마토가 예쁜 꽃을 피워 귀여운 열매를 맺는 그 형태의 자연성을
매우 입체적이고 인상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박진명은 지나간 과거의 기억 너머 찰나의 장면 속에 감춰져 있는 이야기와
시간과 순간의 극적 감정을 독특하게 표출한다.
박영학은 단아한 풍경으로 자연의 풍정을 치밀한 정밀묘사로 동시에 화면의
공간을 꼼꼼하게 메우며 공허한 존재들을 품어내는 특별성을 보여준다.
최민건은 자신에 대한 본질의 의문에서 시작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을
해석하면서 공간속에서 자신을 찾아 나가는 나와 타자의 대비를 이루면서
대칭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고운은 분명했던 대상들의 경계가 모호함과 실재와 환상이 연결되는 색채와
형태의 자율성으로 아름다운 회화의 독창성과 추상성을 획득하고 있다.
박주영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기이한 경험을 이미지와 꽃의 형상으로
색채화, 조형화
하는 이채로움을 뛰어나게 그리고 있다.
이승미는 풀숲 사이에서 바라보면 식물들은 서로 기대고 잡을 것이 없는
자연의 생존과 연결의 관계를 조형적 완성과 더불어 담아낸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 작가들은 서로의 감성과 다른 독창적인 특성을 그려낸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한곳에 모아 풀어낸다. 그것이 진정한 문화 예술의
교류이며 파워인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 예술의 힘을 믿는다. 그것이 바로 한일 예술통신이며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원동력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1-1 인사아트센터 2층